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해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립니다.
2. 예배 후 10월 정기 당회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3시 5분).
3. 1일 3장을 묵상하는 공동 성경 읽기 이번 주 범위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사 40:8)
4.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1,2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함께하여 남선교회의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5. 각 선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교회학교는 올 성탄 축하 잔치를 계획하기 바람에 뜻있는 성탄 맞이들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6. 다음 주일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임원들은 안건 준비를 잘하여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7. 금요 저녁기도회가 오후 7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8. 여선교회 연합 기도회가 오는 31일(토) 오후 4시부터 있습니다(장소: 최희숙 집사 가정 15A Otahuri Crescent, Remuera).
9.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오후 7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간증)으로 이루어집니다(홍보영상 참조).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11월교회사역일지

11월 2일 (월)
다니엘 기도회
11월 8일 (주일)
인도자 공부
11월 28일 (토)
새 가족 환영회
11월 29일 (주일)
대림절 1

11월 기도 순서

11월 1일 (주일)
손조훈 집사
11월 4일 (수)
김민경 집사
11월 8일 (주일)
이정인 집사
11월 11일 (수)
김선화 권사

11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손조훈, 이기중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감사주일

22권 43호

2020.10.25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일예배 수 7:30pm
금요일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아동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100:3-4	인도자
✧찬 송	43장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259장	다함께
대 표 기도	-----	박병민 장로
성경 봉 독	다니엘 6:10	인도자
찬양대찬양	감사 찬송	나무삼자가찬양대
설 교	다니엘의 세 가지 감사기도	이태한 목사
찬 송	일어나 걸어나	다함께
헌 금 기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응 답 송	310장 (1,4절)	다같이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금 주 기도
김수현 자매
다음 주일
조주찬 형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1,2 남선교회
헌신예배
이정인 집사
요한복음 4:20-24
선교회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태한 목사
320장
다같이

선교란

이번 주는 캄보디아 이형식 선교사 소식입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금 캄보디아를 포함한 인도차이나 5개국에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물난리를 겪고 있더라도 할라치면 교통망의 마비와 이재민의 속출로 인한 시름과 아픔이 코로나19보다 더 큰 삶의 현실의 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 교회 두 곳과 기도 처소 한 곳은 비대면 모임,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생명 나무 유치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온라인 예배, 어린이 예배, 복음 증거 동영상 등을 제작해서 캄보디아 선교 현장 전 지역에 보급하며 함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한 결과 지난 7개월의 결실이 10월의 지금에는 의미 있는 선방은 물론 가정 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 그리고 소그룹 활성화 가능성의 새로운 소득을 확인하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한결같은 고백이고 감사입니다. 함께 모이는 갇힌 예배당은 가난해졌지만 가정마다 마을마다 더 넓은 예배의 현장은 오히려 풍성해졌습니다.

4개월 동안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6월 26일 한국으로 출국하여 7월 10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후부터 여러 교회와 후원처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100%의 무계획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국한 여정이었으나 어느 때보다도 바쁜 여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 포항, 대구, 강릉, 제주, 용인 그리고 다시 서울로 코로나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가운데 다녔습니다.

9월 2일에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9월부터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서 선교 현장의 두 교회는 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린이 예배는 아직도 금지입니다 아마도 내년 초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월 12일부터는 생명 나무 유치원도 재개원을 하였습니다. 개원하자마자 35명 정원을 모두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부모님들의 지지와 열정이 대단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예배당과 유치원 그리고 센터 곳곳에 녹슬고 고장 난 곳을 수리하고 새 단장을 하느라 매일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전도사와 교사 그리고 선교지 교인 자원봉사자와 때로는 청소년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하루하루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소식 올리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이형식 이은주 선교사

기도 제목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사역들이 중단됨 없이 계속 진행 되도록.
- 후방 선교사와 전방 선교사가 하나 되어서 새로운 선교의 전략과 방법이 창출되도록.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2. 나태하지 않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도록.

나눔란

2020년 10월 18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이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창세기 15:1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살다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 일 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습니다 (15: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연합군의 보복 공격과 후손이 없다는 현실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시 139:2).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갈등도 두려움도 없기에 두려움은 믿음 생활의 반증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체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으로 물에 뛰어들어 들었지만 물에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베드로처럼 (마 14:30)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굳세게 하시며 도우시며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사 41:10). 두려움을 다스리시고 없애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 나는 네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흥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요단강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빌 1:6). 하나님은 작은 손 방패가 아닌 완전한 보호가 되는 전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어떤 문제도 내가 감당하려 할 때 두렵습니다. 나의 방패는 작은 손 방패이기에 내 약점을 잘 알고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엡 6:11).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우시요 너희의 방패시라(시 115:11) 하신 말씀처럼 믿는 자들의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방패인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과 내일의 싸움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3)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억울함과 자기 연민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상급은 급료, 이득, 가치라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기에 정녕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복 신앙을 멈추고 가장 큰 상급인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유산의 상속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골 1:12).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간구해야 합니다(엡 1:18).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지 살피며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며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은 대로 적용하며 사는 우리 같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 다니엘 6: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